# 순천시, 청년 일자리 만들기 '올인'

호남 최대 규모 창업보육센터 야흥동에 2022년까지 건립 글로벌웹툰센터 연말 개관 창업 생태계 조성 적극 나서

순천시는 2022년까지 호남지역 최대 규 모의 창업보육센터인 '순천형 창업보육센 터' 건립에 나서는 등 청년 일자리 창출 사 업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야흥동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들어설 창

업보육센터는 창업인들에게 사업 추진 공 간을 제공하고 투자 기업을 연결하는 창 업 플랫폼 역할을 한다.

시는 지역 특성과 산업 환경에 맞도록 가상현실(VR)과 전자상거래, 한류음식 에 특화한 창업지원시스템을 마련하기로

시는 올해 초 추진조직을 구성해 중국 중관춘 및 서울창업허브 등 국내외 창업 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시 관계자는 "중국의 실리콘밸리인 중 관춘의 창업시스템과 창업전략을 도입하 기로 업무협약을 맺었다"며 "창업기업 육 성 및 집적화로 창업문화를 확산하는 것 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시는 '웹툰산업의 메카, 젊은 창의도시 순천' 비전을 내세워 순천글로벌웹툰센터 조성에도 막바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만화·웹툰산업 기반 마련과 만화·웹툰 작가의 창작 및 제작 활동을 지원하는 순 천글로벌웹툰센터를 37억원을 들여 연면 적 1551㎡ 규모로 짓기로 했다.

올 연말까지 공사를 마치고 작가와 기 업을 입주시켜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시는 센터를 중심으로 풍부한 유・무형 관광 문화자원을 연계해 새로운 디지털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고, 만화·웹툰 분야 1인 창조기업 발굴과 신규 일자리 창출로 신성장 동력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허석 순천시장은 "창업을 희망하는 이 들에게 기회의 땅 순천에서 성공할 기회 가 되길 바란다"며 "아이디어 하나만 있다 면 성공신화를 창출할 수 있도록 순천형 창업생태계 조성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 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 우승 상금 1억…15~17일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VR/AR·전자상거래·한류 분야 전국서 300명 넘게 참가 신청

순천시가 우승상금 1억원이 걸린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15일 개최한다.

아이디어 하나만 있으면 창업 성공신화 를 쓸 수 있는 이번 경진대회는 나이와 상 관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지 난 10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 결과 전국 에서 300명이 넘는 인원이 참가신청서를 제출했다.

참가대상은 예비창업자 및 창업한 지 3 년 이내인 창업자이며, 참가분야는 VR/ AR, 전자상거래, 한류(음식)이다.

본 대회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 동안 열리며 다음달 7일 최종 심사를 통해 3개 팀을 선발한다.

경진대회는 성향분석 및 전문가 강연을 통한 팀빌딩, 분야별 강연 및 디자인 싱 킹, 지역탐방을 통한 지역자원 연계 아이 디어 발굴 프로그램을 진행한 후 팀별 발 표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순천시는 최종 선정된 3개 팀에게 1등 1억원, 2등 1000만원, 3등 500만원의 상

3개 팀 이외에 패자부활전을 통해 선발 된 2개 팀을 포함한 총 5개 팀에게는 상금 을 제외한 팀당 1억원 이내의 사업화 지원 금을 준다.



이와 함께 순천 외 지역의 선정자에게 는 거주공간 지원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창업을 위한 인큐베이팅과 엑셀러레이 팅 전문교육 및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 허석 시장 "순천평화포럼, 국제 상설포럼으로 발전시킬 것"

세계 전문가들 모여 평화 논의 내년 한중일 평화포럼으로 확대

"올해 처음 열린 순천평화포럼을 다보 스 포럼처럼 세계 전문가들이 세계 평화 를 논의하는 국제 상설 포럼으로 발전시

허석 순천시장은 13일 언론인 정레 브 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내년에는 동 아시아 문화도시와 연계한 한중일 평화포 럼으로 확대하겠다"며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 변화에 걸맞게 미국, 중국, 일본, 러 시아 등 4대 강국 주한 대사들을 초청하겠 다"말했다.

순천평화포럼에 대해선 "이념적 평화를 넘어 생태와 문화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 한 논의의 장이 됐다"며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와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국 인 에티오피아 주한대사 등 국내외 전문 가들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고 평가했

허 시장은 또 "순천은 송광사와 선암사 에서 템플스테이를 할 수 있어 마음의 평

화를 얻을 수 있는 곳"이라며 "마음의 평화 에서 출발해 생태계의 평화로 이어진다면 세계적인 명성을 얻을 것"이라고 기대했 다.

이어 "순천만 습지를 찾는 흑두루미는 국경을 넘어 북한 문덕습지로 날아간다" 며 "북한과 습지 교류를 위해 베이징에서 북한 당국자와 합법적으로 접촉하는 등

보이지 않지만, 남북관계에서 진도를 나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순천에서는 지난달 24일 순천 평화포럼 에 이어 25일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굵직한 행사를 진행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지난달 24일 순천만국가정원 국제습지센터에서 열린 2019 순천 평화포럼 개막식에서 허석 순천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 '표절 논란 '플라워쇼 최우수상 수상 취소





지난 2015년 제15회 코리아컵플라워디자인대회 수상작품(오른쪽)과 표절시 비가 일고 있는 순천만국가정원 플라워쇼 플로리스트부 최우수상 작품.

순천시가 올해 처음 개최한 플라워 쇼 에서 최우수상에 선정된 작품이 표절 논 로 수상 포기 의사를 밝혔다. 란으로 수상이 취소됐다.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순천만국가정원에서 제1회 순천만국가정 원 전국 플라워 쇼가 열렸다.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플로리스트 (Florist)부와 학생부, 일반부 등 3개 분 야에, 총 시상금은 2000만원이다. 플로리 스트 부문에서는 A씨의 '공존'이 최우수 상에 선정됐다. 상금은 300만원이다.

대회가 끝난 뒤 다른 참가자가 A씨의 작품이 이번 대회의 심사위원인 B씨의 작 품과 비슷하다며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A씨는 B씨의 제자로 문제의 작품은 B 씨가 지난 2015년 경기도에서 열렸던 대 회에 출품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혜 논란이 일자 순천시는 곧바로 해 당 작가와 심사위원을 상대로 확인에 나

이에 작가 A씨와 심사위원 B씨는 "표 절이 아니라 작가가 스승의 작품을 존경 하는 의미의 '오마주' (hommage·존경, 경의)한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이들은 순천시가 문제를 제기하자 곧바

순천시도 해당 작가가 상을 받지 않기 로 함에 따라 최우수상을 추가로 선정하 지 않기로 했다.

심사위원 B씨는 "화훼 분야는 처음부터 자기 분야의 색깔을 내기 어려워 좋아하 는 디자인을 따라 할 수 있다"며 "이 작품 도 오마주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지만, 첫 대회부터 문제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 수상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순천시 관계자는 "표절 의혹이 제기된 이후 당사자들이 직접 수상 포기 의사를 밝혔다"며 "심사위원 7명의 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 수상작에서 제외하자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시가 화훼와 정원산업 종사 자에게 활동할 수있는 공간을 줬음에도 이번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해 안타깝다" 며 "이번 일에 대해 자문변호사들의 법률 자문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판 단해 위법으로 판단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 '이순신 장군 백의종군로 걷기' 16일 개최

정유재란 당시 관직이 삭탈된 신분으로 전선을 향해 걷던 이순신 장군의 고난의 길 '백의종군로(路)'를 함께 걷는 '제1회 이순신 장군 백의종군로(路) 걷기 행사'가 16일 순천시 황전면 일대에서 열린다.

백의종군로(路)는 충무공이 중상모략으 로 28일간 의금부에 갇혔다가 관직이 박탈 된 채 초계(합천)에 있던 도원수부의 권율 장군을 찾아가는 서울-전주-남원-구례-순 천-통영을 잇는 총 640km의 여정을 말한다.

순천 황전면 구간은 황전천변과 송치재 를 넘가는 구간이다. 이 길은 서면의 서천 을 따라 순천시내 팔마비에 이른다.

이날 행사는 황전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괴목교를 지나 황학마을을 거쳐 되돌아오 는 총 4km를 걷는 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걷기행사는 이순신장군 백의종군로 4코스 구간중 황전구간을 '비움으로 승리 하는 정신'으로 승화시킨 충무공 이순신의 발자취를 재조명하는 취지로 기획됐다.

시민과 관광객이 역사의 현장 걷기에 참 여해 백의종군로를 널리 알리고 나라를 사 랑하는 마음을 되새겨보는 기회를 갖는다.

황전면 관계자는 "건기코스 중심의 미 래형 관광트렌드 변화에 대비해 백의종군 로를 연간사업으로 발전시켜 황전면의 관 광 인프라 구축과 이를 자원화하는데 주 력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더 많은 순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모를 확대해 명실상부한 역사탐방 프로그램으로 운영 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순천=차성환 기자 csh@kwangju.co.kr

##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인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집기

# 창사 32년 (주)YHB ECO

www.vhbeco.co.kr

### **미스트크**2111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 전기집집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TEL: 062 - 953 - 2995 광주공장 영업부: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청동) H·P: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내룡테크노타운12차 501호 TEL: 02 - 2029 - 6400 ~ 3